

고추산업의 국내의 현황과 전망

권태룡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고추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조미채소로 쌀 다음으로 농업총생산액이 가장 높으며 전체 채소 중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액을 차지하는 중요한 현금성 작물중의 하나다. 고추의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미국 남부로부터 아르헨티나 사이에 분포)로 고온성 작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고추가 도입된 내력은 광해군 6년(1614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가리키는 '남만초'의 기록이 있고 그 도입경로가 왜국인 까닭에 '왜개자(倭芥子)'라고도 불렸으며 이것을 재배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국내



홍고추

고추는 조미료로 쓰이는 건고추와 생식용으로 쓰이는 풋고추로 나누어지지만 옛날에는 주로 건고추로 이용하였다. 건고추는 1975년 이래 우리나라의 채소류 중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이다. 1985년 120,853ha를 기점으로 점차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07년도의 재배면적은 54,876ha에서 160,398M/T의 건고추가 생

산되어 10a당 평균수량은 292kg이었다(표 1). 고추 재배면적과 수량은 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추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고 노지 재배는 재배기간 중의 고온, 건조, 태풍, 폭우 등의 기후요인에 의해 풍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표 1. 건고추의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연도 | 재배면적 (ha) | 채소 전체에 대한 비율 (%) | 생산량 (M/T) | 10a당 수량 (kg) |
|-----------|--------------|---------------------|--------------|-----------------|
| 1956~1960 | 13,320 | 11.7 | 27,607 | 208 |
| 1961~1965 | 17,277 | 13.0 | 39,797 | 230 |
| 1966~1970 | 30,867 | 15.2 | 66,799 | 223 |
| 1971~1975 | 55,346 | 25.8 | 84,531 | 159 |
| 1976~1980 | 103,751 | 38.8 | 115,595 | 109 |
| 1981~1985 | 120,853 | 33.4 | 148,882 | 124 |
| 1986~1990 | 89,955 | 26.1 | 165,026 | 188 |
| 1991~1995 | 81,787 | 22.0 | 173,951 | 172 |
| 1996~2000 | 76,740 | 20.5 | 194,995 | 254 |
| 2007 | 54,876 | - | 160,398 | 292 |

1970~1980년대의 풋고추 재배면적은 전체 채소재배 면적의 0.1~0.4%였던 것이 2000년에는 1.3%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재배면적 5,606ha에서 236,052M/T이 생산되었으며 10a당 평균 수량은 4,211kg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의 약 1.92%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표 2. 풋고추의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연도 | 재배면적 (ha) | 채소 전체에 대한 비율 (%) | 생산량 (M/T) | 10a당 수량 (kg) |
|-----------|--------------|---------------------|--------------|-----------------|
| 1966~1970 | 138 | 0.1 | 3,425 | 2,499 |
| 1971~1975 | 327 | 0.2 | 4,608 | 1,461 |
| 1976~1980 | 953 | 0.4 | 11,457 | 1,248 |
| 1981~1985 | 1,850.8 | 0.52 | 25,625 | 1,395 |
| 1986~1990 | 2,386.8 | 0.72 | 42,145 | 1,806 |
| 1991~1995 | 3,660.2 | 0.98 | 89,427 | 2,408 |
| 1996~2000 | 4,981 | 1.33 | 159,164 | 3,165 |
| 2006 | 5,606 | 1.92 | 236,052 | 4,211 |

노지고추의 재배면적은 전체 54,837ha 중 경북이 14,761ha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전남이 16.9%, 충북이 13.0%, 전북이 12.5% 순이다(표 3).

표 3. 시도별 재배면적

(2007년도)

| 지역 | 건고추 | | 풋고추 | |
|-----|----------|-------|----------|-------|
| | 재배면적(ha) | 비율(%) | 재배면적(ha) | 비율(%) |
| 전 국 | 54,837 | 100 | 5,606 | 100 |
| 서 울 | 25 | 0.0 | 2 | 0.0 |
| 부 산 | 52 | 0.1 | 6 | 0.1 |
| 대 구 | 160 | 0.3 | 28 | 0.5 |
| 인 천 | 677 | 1.2 | 21 | 0.4 |
| 광 주 | 152 | 0.3 | 417 | 7.4 |
| 대 전 | 114 | 0.2 | 14 | 0.2 |
| 울 산 | 205 | 0.4 | 23 | 0.4 |
| 경 기 | 3,881 | 7.1 | 289 | 5.2 |
| 강 원 | 3,522 | 6.5 | 636 | 11.3 |
| 충 북 | 7,142 | 13.0 | 185 | 3.3 |
| 충 남 | 5,754 | 10.5 | 708 | 12.6 |
| 전 북 | 6,839 | 12.5 | 135 | 2.4 |
| 전 남 | 9,284 | 16.9 | 833 | 14.9 |
| 경 북 | 14,761 | 26.9 | 574 | 10.2 |
| 경 남 | 2,275 | 4.1 | 1,735 | 30.9 |
| 제 주 | 33 | 0.1 | 0 | 0.0 |

시설 풋고추 재배면적은 전체 5,606ha 중 경남이 전체의 30.9%인 1,735ha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남이 833ha, 충남이 708ha, 강원이 636ha 순이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시설 풋고추 재배면적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기의 고랭지에서 풋고추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주요 국가별 풋고추 및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상위 10개국의 현황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각각 79.4%, 82.5%를 차지하고 있고 건고추는 각각 87%, 81.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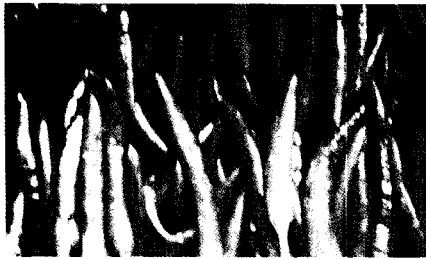
중국의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세계 풋고추 전체 재배면적 172만 6천ha 중 63만 2천8백ha로 37%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전 세계 풋고추 생산량 2,586만 톤의 50.4%인 1,303만 톤이다.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 세계 재배면적 198만 2천ha 중 3만 8천ha로 세계 7위인 1.9%,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 274만 7천 톤 중 24만 5천 톤으로 8.9%를 생산하여 제2의 생산국이다.

인도네시아의 풋고추 재배면적은 17만 3천ha에 87만 톤을 생산하여 전 세계 풋고추 재배면적의 10.1%, 생산량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멕시코의 풋고추 재배면적은 9만 1천7백ha에 168만 톤을 생산하여 전 세계 풋고추 재배면적의 5.3%, 생산량의 6.5%를 점유하고 있고, 건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각각 3만 3천 7백ha에서 5만 9천 톤의 건고추를 생산하여 세계 건고추 재배면적의 1.7%,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가별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6년, FAO)

| 순위 | 국가 | 재배면적(ha) | 비율(%) | 순위 | 국가 | 생산량(톤) | 비율 |
|----|-------|-----------|-------|----|-------|------------|------|
| 계 | 세 계 | 1,726,038 | 100 | 계 | 세 계 | 25,866,864 | 100 |
| 1 | 중 국 | 632,800 | 36.7 | 1 | 중 국 | 13,031,000 | 50.4 |
| 2 | 인도네시아 | 173,817 | 10.1 | 2 | 터 키 | 1,842,175 | 7.1 |
| 3 | 나이지리아 | 92,000 | 5.3 | 3 | 멕시코 | 1,681,116 | 6.5 |
| 4 | 멕시코 | 91,716 | 5.3 | 4 | 스페인 | 1,074,100 | 4.2 |
| 5 | 터 키 | 88,000 | 5.1 | 5 | 미국 | 893,610 | 3.5 |
| 6 | 에티오피아 | 81,544 | 4.7 | 6 | 인도네시아 | 871,080 | 3.4 |
| 7 | 가 나 | 77,000 | 4.5 | 7 | 나이지리아 | 721,500 | 2.8 |
| 8 | 대한민국 | 67,023 | 3.9 | 8 | 이집트 | 460,000 | 1.8 |
| 9 | 미국 | 36,300 | 2.1 | 9 | 대한민국 | 395,293 | 1.5 |
| 10 | 이집트 | 29,000 | 1.7 | 10 | 이탈리아 | 345,152 | 1.3 |



꽃고추

미국의 꽃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3만 6천ha에 89만 3천 톤이 생산되어 세계 5위의 생산국이다. 재배면적이 대규모이고 기계를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배 및 생산여건은 국내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터키, 가나 등의 국가들에서도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국내 고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주요 재배품종은 중국 내의 많은 종묘회사 및 연구기관에서 품종을 육성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고정종 품종과 일대잡종 품종들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고추 종자의 수출로 국내 품종의 재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외에도 고추 생산국은 주로 자국의 재래종 품종이 대부분이고 최근 다국적 기업의 고추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표 5. 국가별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2006년, FAO)

| 순위 | 국가 | 재배면적(ha) | 비율(%) | 순위 | 국가 | 생산량(톤) | 비율(%) |
|----|---------|-----------|-------|----|--------|-----------|-------|
| 계 | 세 계 | 1,982,061 | 100 | 계 | 세 계 | 2,747,003 | 100 |
| 1 | 인 디 아 | 954,717 | 48.2 | 1 | 인 디 아 | 1,193,025 | 43.4 |
| 2 | 에티오피아 | 288,386 | 14.5 | 2 | 중 국 | 245,000 | 8.9 |
| 3 | 방글라데시 | 154,812 | 7.8 | 3 | 방글라데시 | 185,635 | 6.8 |
| 4 | 미 안 마 | 101,447 | 5.1 | 4 | 페 루 | 161,708 | 5.9 |
| 5 | 베 트 남 | 50,793 | 2.6 | 5 | 에티오피아 | 118,288 | 4.3 |
| 6 | 파 키 스탄 | 42,600 | 2.1 | 6 | 베 트 남 | 81,007 | 2.9 |
| 7 | 중 국 | 38,000 | 1.9 | 7 | 가 나 | 78,000 | 2.8 |
| 8 | 멕 시 코 | 33,772 | 1.7 | 8 | 미 안 마 | 65,697 | 2.4 |
| 9 | 나이지리아 | 31,000 | 1.6 | 9 | 파 키 스탄 | 61,900 | 2.3 |
| 10 | 루 마 니 아 | 30,000 | 1.5 | 10 | 멕 시 코 | 59,593 | 2.2 |

고추산업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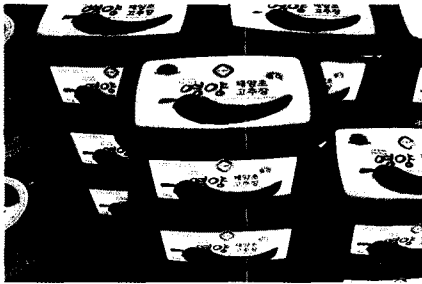


절단건조고추

경쟁력 분석

• 강점과 기회 요인

고추는 우리 식생활의 기본 먹을거리이며 쌀 다음으로 중요한 경종작물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비해 육종기술이 우수하고 또한 우수한 기술로 만든 품종을 재배 함으로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 최



가공품 - 고추장



가공품 - 고춧가루

근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우리 것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고추는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으로 전량 수입 고추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추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다.

• 약점과 위협요인

고추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재배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노동의 강도, 농자재비 증가 및 수확노동력 부족에 의한 생산비 과다(1,617원/kg, 중국의 7.2배),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병충해 등에 의한 연차별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가격의 기복이 심하고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며 위협요인이다.

발전전망

단·중기적 관점에서는 내병이나 고품질의 품종개발로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환경친화적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산지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고춧가루 입자, 매운맛, 색도 등 품질규격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특산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내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육묘, 정식, 수확 등의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일시수확형 품종개발과 무지주 재배, 기계수확 재배기술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사진제공 | 권태몽)